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http://www.mke.go.kr
'10년 9월 28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지식경제부 조영신 전자정보산업과장, 김은경 사무관(02-2110-5677)		

2012년, 스마트TV 글로벌 선도국가 지속 유지

- 지식경제부, '스마트TV 산업계 간담회' 개최 -

□ **지식경제부**는 9.28(화) 팔래스 호텔에서 **최경환 장관 주재**로 산·학·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TV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동 행사에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강신익 LG전자 사장, 이정식 LG U+ 본부장, 서종렬 KT 본부장, 최평락 전자부품연구원장 등이 참석**

□ **최경환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세계TV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스마트TV의 출현을 계기로 **변화될 시장구도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 스마트폰의 경험에 견주어 볼 때 **스마트TV의 경쟁력**도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플랫폼**에 있다고 전망

○ 또한, **국내 스마트TV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TV제조사는 물론 IPTV, 케이블 등 기존 방송 사업자, 콘텐츠 생산자, 초고속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 등 모두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유기적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

□ 아울러, 사회 전반의 스마트 분위기에 따라 스마트TV 시대의 도래는 필연적이나, **스마트TV 서비스의 보편화 시점을 예측**하고 이에 **적합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스마트TV 포럼을 통한 의견수렴을 해나가면서 **하반기 중에 「스마트TV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관계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

□ 지식경제부는 정만기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스마트TV 산업 현황 및 육성방안"**을 발표, 스마트TV 글로벌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신시장 창출, 기술역량 강화, 인프라 조성을 위한 세부과제를 제시

○ 신시장 창출을 위한 세부 과제로 ① 애플리케이션 확보, ② 해외시장 창출, ③ 스마트TV포럼 활성화를 추진

- 소비자에게 높은 편익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분야는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 TV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추진

- 대기업의 높은 해외시장 점유율과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STB, UI 등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고, 유망콘텐츠인 해외에서 선호하는 한류콘텐츠의 현지어 번역지원사업 등을 추진

- 스마트TV 포럼을 통해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국내 스마트TV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및 우리기업의 글로벌진출 촉진

○ TV의 기술경쟁력 강화 과제로 ① 플랫폼 개발, ② UI 기술 개발, ③ 표준화·특허 지원을 추진

- 단기적으로 기업 주도로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표준화 및 이에 연계한 플랫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플랫폼의 보편화 및 제품 다양화를 위해 중소기업 위주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 중심의 키보드·마우스 등 UI(User Interface)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동작·음성 인식 등 미래핵심 원천기술개발 추진

- NPE(Non Practicing Entity)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 특허대응 역량 강화 및 아시아 국가 특허대응 공조체제 마련

○ 인프라 조성을 위한 세부 과제인 ① 인터넷 망 증설, ② 법·제도 정비 문제는 관계부처(방통위)가 향후 심도있는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며, ③ 인력양성기반도 스마트TV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임

□ 지식경제부는 이를 통해 TV세트, 세계 1위 시장점유율을 강화하고, 2012년에 스마트TV 서비스의 보편화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 스마트TV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터넷 망 증설과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지원 등에 대해 건의하고,

○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지원을 요청함

○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 등과 협의 및 검토를 통해 하반기 발표할 “스마트TV 산업 발전전략”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장관님 스마트TV 산업계 간담회 개최 계획

□ 추진배경

○ 스마트폰에 이어 스마트TV라는 전자·방송·통신 등 융합제품의 출현으로 산업의 생태계가 변화되면서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

- 이에, 스마트폰의 경험을 교훈삼아,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 모색 필요**

□ 행사개요

○ **일시 및 장소** : '10.9.28(화) 11:00~13:00, 팔래스호텔 로얄볼룸(1층)

○ **참석(20)** : **장관님**, 방통위 형태근 상임위원, LG전자 강신익 사장, 삼성전자 김현석 전무, LG U+ 이정식 본부장, KT 서종렬 본부장, KETI 최평락 원장 등

＊ 정책발표 : 정만기 정보통신산업정책관

□ 진행 계획

시 간	소요 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50~11:00	(10')	스마트TV 시연	
11:00~11:05	(5')	기념촬영	
11:05~11:15 (각5분)	(10')	**인사말씀**	**장관**
			방통위 상임위원
11:15~11:30	(15')	**스마트TV 산업 발전전략**	**정보통신산업정책관**
11:30~12:55	(85')	오찬 및 자유토론	12:00부터 오찬 제공
12:55~13:00	(5')	**마무리말씀**	**장관**

【첨부1】

스마트TV 산업계 간담회 참석자 명단

구분	소속	성명	직위	비고
정부 (4)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	
		정만기	국장	
		조영신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	
가전사 (2)	LG전자	강신익	사장	
	삼성전자	김현석	전무	
통신사 (3)	KT	서종렬	본부장	
	SK브로드밴드	이주식	사업부문장	
	LG U+	이정식	본부장	
방송사 (3)	KBS	김태환	연구소장	
	CJ헬로비전	이상용	상무	
	EBS	이명구	부사장	
통신장비	지피엔씨	남홍건	대표이사	
인터넷	NHN	홍은택	이사	
콘텐츠	대교CNS	오석주	대표이사	
솔루션	알티캐스트	유인청	사장	
학계	광운대학교	정광수	교수	
연구계 (2)	전자부품연구원	최평락	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호진	소장	
기관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박찬업	부회장	

【첨부2】

스마트TV 산업 발전전략(안)

2010. 9. 28

지 식 경 제 부

◈ 본 “스마트TV 산업 발전전략(안)” 은 스마트TV 포럼T/F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초안으로

◈ 금일 제기된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에 정부안으로 확정할 계획임

※ 추진 경과

- 10. 7. 9 스마트TV 조찬간담회
- 10. 8. 12 스마트TV포럼 제1차 창립준비위 개최 및 협의
- 10. 8. 24 스마트TV포럼 제2차 창립준비위 개최 및 실무 회의
- 10. 9. 7 스마트TV포럼 창립총회 및 실무 회의
- 10. 9. 15 스마트TV 산업 발전방안 회의

Ⅰ. 추진 배경

◈ 네트워크 사회로 발전하면서 IT산업의 경쟁력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인터넷에 연결되어 多기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TV**"가 등장

1. 스마트TV 개요

□ **실시간방송 시청**이라는 고유기능은 물론 인터넷 연결을 통한 **PC** 기능, 인터폰·에너지 제어 등 향후 **스마트홈** 서비스도 수행하는 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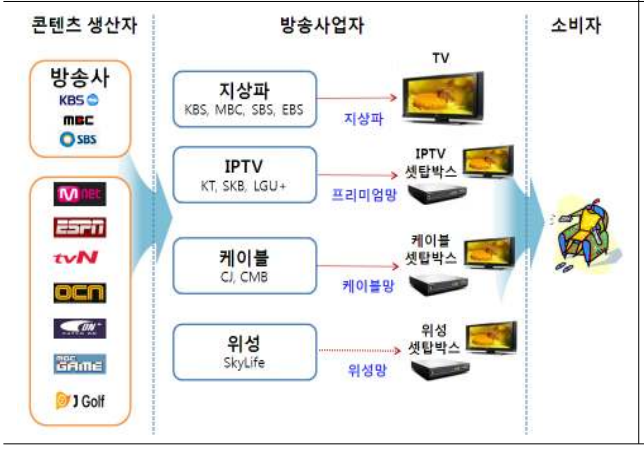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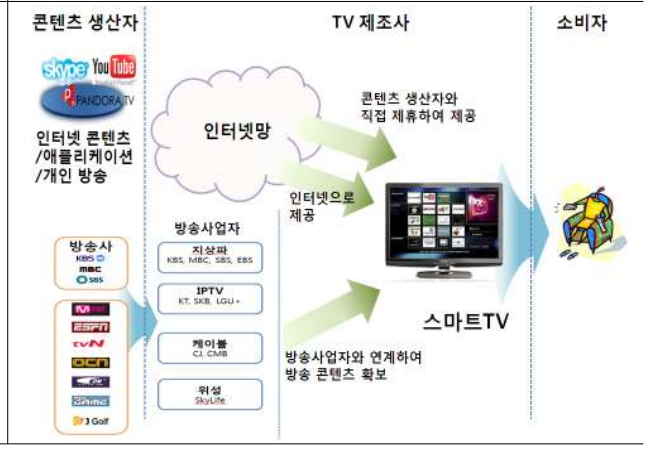
○ 스마트TV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OS)를 포함한 **플랫폼***을 탑재한 **단말기**(TV), TV용 **콘텐츠**, 초고속 **인터넷망 필요**

* TV·셋톱박스에 탑재되어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등을 동작시키는 소프트웨어 엔진으로, 플랫폼 기술력에 따라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의 양과 질이 결정됨

□ 스마트TV는 **TV제조사**(삼성, LG 모델)가 **콘텐츠 생산자**로부터 **직접 콘텐츠를 제공**받아 서비스하는 점에서 기존 TV와 **구분**

○ 콘텐츠생산자 → **방송사업자** → 소비자로 이어지는 현행 구조에서 콘텐츠생산자 → **TV제조사** → 소비자 구조로 변화되어 방송사업자와 TV제조사간 새로운 역학관계 형성 전망

< 방송 전달 체계 비교 >

기존TV	스마트TV
방송사업자 위주로 방송서비스 제공	TV 제조사 및 플랫폼 사업자 위주로 방송·인터넷콘텐츠 및 응용프로그램 제공
	

□ 스마트TV는 **대형화면**에서 PC, 전화, 게임기 등 다양한 IT기기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시장이 크게 확산**될 전망

○ 스마트TV의 경쟁력은 가격·품질보다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양과 질에 의해 좌우**될 전망

○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유치를 위한 **고성능 플랫폼 기술**과 **사용이 편리한 UI**(User Interface)* 기술도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

* 리모콘, 터치인식기, 소프트웨어 자판, 그래픽 등으로 TV를 제어하는 장치

○ 다만, **수동적인 TV시청행태, 가족단위 제품, TV교체주기** 등으로 스마트폰처럼 급격한 시장수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2. 대책 필요성

□ 우리나라는 디지털 평면 TV 이후 **LED, 3D 등 뛰어난 기술력**과 **슬림하고 우수한 디자인**으로 세계 TV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세계TV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24%), LG전자(14.7%)로 우리나라가 세계 1위('10.8)

□ 금년, 본격적인 스마트TV의 등장이 예고되면서, **구글(소니), 애플 등과 치열한 경쟁**이 전망

○ **구글**은 인터넷 **검색, 애플**은 **모바일**에서의 **콘텐츠 우위**를 기반으로 TV시장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

□ 향후,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플랫폼에 대한 기술 우위기업인 **구글과 애플에게 종속**당할 우려

○ 또한, **플랫폼 기반**의 **독자적인 시장지배력**이 없으면, 애플 등과 제휴한 **중국과 대만**으로부터 **시장 잠식**의 가능성 존재

⇒ 이에, **글로벌 TV시장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 스마트TV 경쟁력 제고와 국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이 긴요

Ⅱ. 현황 및 전망

◈ 스마트TV 시대의 도래는 **전체 TV시장의 확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콘텐츠 및 서비스 시장 활성화**도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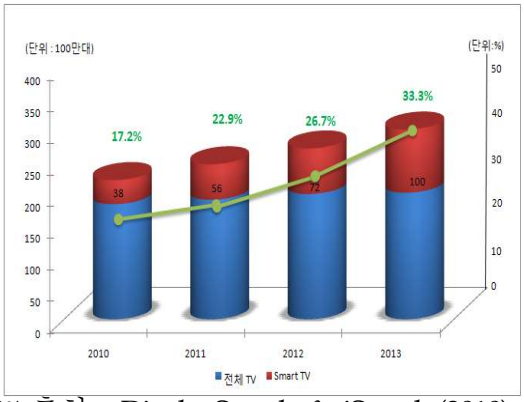
◈ **글로벌TV시장**은 삼성·소니 등 기존 TV세트업체에 구글·애플 등 인터넷·모바일기반 기업의 가세로 더욱 **치열한 각축** 예상

1. 시장 측면

□ 스마트TV 시장은 세계적으로 '10년 3,800만대*에서 '13년 1억대(1,250억불**) 규모로 성장, 국내에서는 '10년 29만대에서 '13년 131만대(1.9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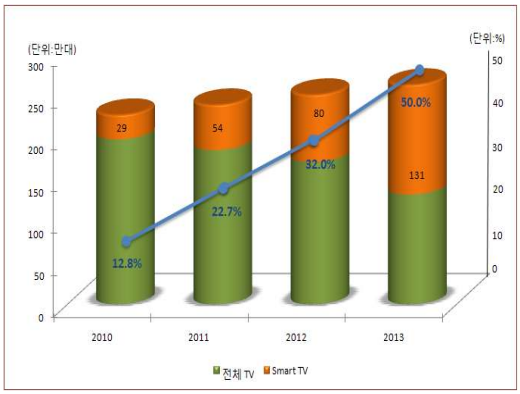
* '08년부터 출시된 인터넷 커넥티드TV를 스마트TV 초기모델로 간주, 통계 작성
** '11년 메모리 반도체 세계시장규모 501억불 규모(IDC 2009)

<세계 스마트TV 시장전망>



※ 출처 : DisplaySearch & iSupply(2010)

<국내 스마트TV 시장전망>



※ 출처 : KT경제경영연구소(2010)

□ 스마트TV의 융합산업적 특징으로 인해 관련 제조 및 서비스 생산을 20~40% 증대, 총 수출 20% 이상 확대, 고용 16.8만명 창출 전망

< 스마트TV 도입에 따른 디지털TV 대비 시장 및 국내 수출입·고용 전망 >

구분	국내외 관련 시장					국내 수출입		고용유발
	단말	장비/부품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방송콘텐츠	총 수출	총 수입	
국내	21.6%	25.2%	19.8%	43.0%	24.8%	21.1%	9.2%	16.8만명
글로벌	18.0%	22.4%	16.2%	38.0%	21.8%			

자료 : ETRI, '10.7

1) 스마트TV 판매단가를 150만원으로 책정하여 (대수*판매단가)로 추정(1$=1,200원)

2. TV세트 기업 측면

□ **(삼성·LG)** 기존 TV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독자 플랫폼을 개발('10.9월), 구글·애플에 대응하는 플랫폼 경쟁구도 형성 전략 추진

○ TV자체의 **하드웨어적인 우월성**과 시장 본격화에 대비한 플랫폼 **준비를 통해 플랫폼 선도기업과 경쟁구도 설정**

* 삼성·LG는 자체개발한 플랫폼을 탑재한 스마트TV를 사용하여 출시했으나, 향후 시장판도에 따라서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탑재를 배제하지 않은 상황

○ 국가별로 특화된 "현지 콘텐츠" 확보를 위해 현지 콘텐츠 업계와 제휴하고, TV용 앱스토어 구축, 애플리케이션 개발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 콘텐츠 확보 추진**

* 국내시장은 CJ 등 기존 콘텐츠 제공자와 협력('10.9월)

□ **(소니+구글)** 소니(TV·**콘텐츠**)와 구글(OS·**플랫폼**)의 **전략적 제휴**

○ **(소니)** 개방형 안드로이드 OS 및 플랫폼에 웹 브라우저가 탑재된 TV 공개, 旣구축된 다양한 게임·영화·음악 **콘텐츠** 활용

○ **(구글)** TV 제조기능 없이 플랫폼 기술력을 토대로 한 **웹 검색과 광고 수익** 모델로 스마트TV 시장 진출

□ **(애플)** iOS 기반의 개방(앱, 콘텐츠 개발자)·폐쇄형(하드웨어 제조사) 플랫폼으로 旣확보된 모바일용 **앱스토어 콘텐츠** 경쟁력을 활용

○ 우선, 저렴한 셋톱박스(99불)를 통해 기존 일반TV에 서비스를 시작하고, '11년 애플 iTV(대만 홍하이 OEM) 출시를 통해 **아이폰·아이패드와의 연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

□ **(IPTV사업자 : KT·SKB)**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등 스마트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셋톱박스 보급**을 통해 기존 IPTV서비스를 보다 확대한 **방송 사업자 역할 강화**로 스마트TV 시대에 적극 대응

Ⅲ. 당면과제

◈ 우리나라 TV산업의 글로벌 리더 지위를 지속 확장

◈ 국내 스마트TV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경쟁요소 분석 및 평가

1. TV세트 경쟁력 측면

1 TV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

○ **(하드웨어)** LCD, 3D TV 등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인 디스플레이·LED BLU 등 하드웨어 기술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

- 다만, TV가 PC의 기능을 탑재하면서 프로세서 칩의 **방열** 문제, 복잡한 부품·회로구조에 따른 **고장과 A/S문제** 등을 대비할 필요

○ **(소프트웨어)** OS·플랫폼 기술력은 킬러콘텐츠·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고성능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는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 확보** 여부가 관건

- 방송·VoD(Video On Demand) 등 범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기술력은 구글·애플 대비 격차가 미미하나,

- 교육·게임·화상통화·홈네트워킹 등 다양하고 편리한 UI기술이 적용되는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기술력은 뒤처지는 상황**

* 우리나라의 플랫폼 개발역사는 구글·애플 대비 2년 뒤져있으며, 개발인력은 1/5 수준에 불과

2 킬러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시장 창출

○ **(현지 콘텐츠)** TV세트의 경쟁력은 풍부하고 재미있는 국가별 현지 콘텐츠(애플리케이션)을 누가 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는가에 좌우

- TV시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송·VoD 등 범용콘텐츠**는 현지 콘텐츠생산자와 모든 TV제조사간 제휴로 **차별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스마트폰의 경우과 같이 **애플리케이션의 양과 질**은 초기 **스마트TV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

* 삼성·LG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콘테스트 개최 등 현지 킬러콘텐츠 확보에 주력

○ **(한류 콘텐츠)**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의 선호가 높은 한류콘텐츠를 다수 확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3 UI(User Interface)에 대한 기술경쟁력 제고

○ UI는 시청자가 TV 작동을 제어하는 기기로 스마트TV의 복잡한 기능을 편리하게 해주는 UI제공이 경쟁력의 중요요소가 될 전망

- **현재**의 버튼식·터치식 리모콘의 **UI 기술력은 차이가 없**으나, **향후**, 동작·음성인식 같은 **편리하고 재미있는 UI 개발이 시급**

○ 장기적으로 스마트 TV에 최적화된 UI **원천기술개발 및 기기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필요**

4 스마트 홈 서비스 시장 창출

○ 스마트TV는 인터폰, 에너지 제어 등 **스마트홈서버**, 멀티스크린을 통한 **미디어서버 역할** 등 스마트홈 서비스*의 중심역할 수행 전망

* 홈전력 관리, 홈건강관리, 스크린간 정보공유, 홈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 우리나라는 신축주택 중심으로 관련 시장을 창출하는 선도국가이나, **킬러서비스**는 부족한 상황

- TV가 가전기기와 연결된 제어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에너지 절감 서비스 등 **시장창출을 위한 여건 마련 필요**

2. 스마트TV 서비스의 국내 활성화 측면

1 사업자간 경쟁·협력 관계 정립

○ **스마트TV 제조사**가 **직접 콘텐츠 생산자와 제휴**하여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IPTV·케이블 방송사업자와 사실상의 경쟁 구도 형성

- 다만, 스마트TV는 인터넷의 일반망과 연결됨으로써 HD방송시청이 어려워, 소비자가 고화질 IPTV·케이블 방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상호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

* 현재 IPTV는 인터넷 프리미엄 망을 활용하여 고품질 HD급 동영상 제공이 가능하여 실시간 방송과 VoD 서비스 시장에서는 경쟁력 확보

< 인터넷 망 사업자 및 망 구분 현황 >

○ 인터넷망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KT, SKB, LG U+) 또는 지역 유선사업자(케이블)가 설치, 서비스품질에 따라 일반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일반망**(Best effort)과 IPTV서비스를 위한 **프리미엄망**(QoS)으로 구분

- TV제조사와 방송사업자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시청자의 편익을 극대화할 필요

○ **콘텐츠생산자**는 구매자가 보다 확대됨에 따라 **협상능력이 제고**되므로 생산자와 구매자가 상호 윈-윈하는 협력관계로 발전할 필요

2 인터넷 망 구축

○ 스마트TV 보급 확대는 일반망의 용량 부족 현상을 초래하여 망 증설을 하지 않을 경우 **고화질의 HD급 동영상 서비스가 곤란**

* 스마트TV의 경우 대형화면과 HD급 품질유지를 위해 PC보다 데이터 트래픽 4배 증가

- 이에,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망 증설 투자주체**와 **비용 분담**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야 할 시기

○ 인터넷 망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망 제어 및 관리에 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연구**도 병행할 필요

3 법·제도 정비

○ 스마트TV는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는 각종 콘텐츠·애플리케이션을 PC처럼 자유롭게 시청·이용이 가능한 상황

- 보다 제한된 서비스를 하는 IPTV의 경우에는 법에 의해 여러가지 **사전·사후규제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규제형평성 차원에서 관련 제도 재검토 필요

* 구글·애플의 스마트TV진출 이유 중 하나는 규제없이 방송사업에 진출코자 하는 것으로 국내시장 규제 도입 여부에 대해 신중한 접근 필요

○ 인터넷 상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유해성·선정성 문제 관련** 규제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

< IPTV·케이블TV와 스마트TV 비교 >

	IPTV·케이블TV	스마트TV
주요 기업	• KT(Qook TV), SKB(Home TV) • IPTV사업자와 인터넷 망사업자 동일	• 삼성·LG·애플 등 제조사 • 인터넷 망 사업자의 협력 필요
주요 서비스	• TV사업자의 핵심 콘텐츠인 실시간 방송·VoD 중심 서비스 • SNS(쿡끼리) • 엔터테인먼트(게임, 노래방등) • 이메일, 교육, 금융 등	• 방송 및 VoD • SNS (트위터, 페이스북) • 화상통화(스카이프) • 인터넷 서핑, 이메일
서비스 품질	• 인터넷의 프리미엄망(QoS) 사용으로 고화질(HD) 실시간 방송서비스 가능	• 인터넷의 일반망(Best Effort) 사용으로 고화질(HD) 실시간 방송 시청 곤란 • 지상파의 경우 난시청 지역 존재
규제	• IPTV법에 의한 방통위의 허가, 경영 및 지분제한, 시장점유율 제한, 프로그램 선정 등의 규제	• 형평성 차원의 규제 필요성 제기
플랫폼	KT 자체 제공 (폐쇄형 → 개방형)	가전사에서 제공 (개방형)

◈ 우선, 기술개발, 인력양성, 글로벌 시장진출 등 국내기업의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인터넷 망 증설, 법·제도 개선 등은 산학연관 포럼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안 마련